



본협회
 감사 **진 두 현**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방법

소와 쇠고기의 분별없는 과다수입으로 홍역을 앓은지 3년, 아직도 그 상
 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쇠고기의 수입압력이라니 충격을 넘어 허탈에 잠
 기게된다. 또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우려하여 모돈(母豚)의 감축을 강행하
 고 있는 판에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을 허용하였다고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단호히 막아줄것을 요망한다.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강력
 히 막아 주는길밖에 뾰족한 수가있을 수 없다. 국민 식사 패턴의 변천에따
 라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농가부업의 차원을 넘어 근대화 기업으로 뿌리내
 린지 불과 20년의 짧은 역사로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수입을 개
 방한다면 우리의 축산은 전면적붕괴(全面的崩壞)를 면치 못할것이 뻔하다.
 축산물의 수입압력이 축산자체의 수급사정에서 초래된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로 빚어진 원화인상압력(원貨引上壓力)을 무마하는데 있어
 서 Scape goat로 삼으려는데 우리는 분노를 참을수 없다.

미국농민을 살리기 위하여 이땅의 축산을 쓸어져도 어쩔수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면 무역흑자를 위하여서는 우리 농민의 희생쯤은 어쩔수 없다
 는 말인가. 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에 큰나라의 큰농장 산물을 씨름 시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아니고 작은 나라산물의 멸망을 가져올 뿐
 이다. 미국은 GATT정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좋아한다. 그러나 세계어
 느나라도 갓트정신을 완벽하게 지키는 나라는 없고 농업만은 가이 자유무
 역체제의 법외지대(法外地帶)라고 할수 있지않는가. 미국자신도 자국산
 우유는 보다값싼 호주, 뉴질랜드산 우유의 수입에 밀려 나지않게 보호하
 고 있으며 Spaghetti(달걀든것)도 관세를 0.25%에서 일약 25%로 올려E
 C에서의 수입을 막고있음을 보아도 알수 있다.

우리가 보기엔 기이할만큼 작고 잡다한 농산물 - 동물의 방광, 갖가지주
 스프 - 을 들이밀고 있는것은 E.C권을 위시한 각국이 농산물만은 확고히
 보호하고있어 쉽사리 그벽을 뚫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무역흑자를 핑계로
 우리에게 팔겠다는것이다. E.C권에서 농산물에 대하여 확고한 보호조성
 정책을 쓰는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농업은 곧 국토의 보존개발을 뜻하
 며 언젠가는 있을지 모를 식량무기화(食糧武器化)에 대비해야하고 또
 자연상대의 농민을 국민의 핵(核)으로 건전한 생활조건을 용유(擁有) 하

겠다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광범한 국민의 참여로서 이룩된 농업은 여타 모든 산업을 지탱하는것으로서, 비유컨대 토양(土壤)과 같은것, 모든 무역품은 이 토양을 밑바탕으로 이룩되는것이다. 무역공산품이 국제 무역의 격랑에 시달려 내일의 운명을 예측치 못하다라도 그 밑바탕으로서의 농업은 튼튼히 그 명맥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42억불이란 무역흑자는 놀랄만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이룩된것인만큼 이의 흥성이 영원하리라고 확신할수 없다. G.M, 포드, 닛산, 도요다 같은 거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이룩된 자동차 수출을 예로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換率操作) 하나만으로도 당황하는 판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가측적(可測的) 숫자에 도취되어 불가측적인것이라고 함부로 해석하는 돌이킬수없는 후회를 가져올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농업을 불가침의 성역(聖域)으로 자임하고 있으며 세계각국도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료곡물만으로도 연간 7억불어치를 주로 미국에서 사들여 오고 있어 3,4위안의 고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료곡물로서 생산된 소, 돼지, 닭을 땅칠수밖에 없는 쇠고기, 돼지, 닭고기의 개방은 미국으로서도 계산을 잘못된것이 아닐까 한다. 이중으로 파는것을 알고했다면 너무도 염치없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거부의 이유가 될 것이다.

축산물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결단을 바라는것이 있으니 축협중앙회를 농협으로 환원시켜달라는 것이다. 축산진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된 축협은 출발부터 외국의 싼 소나 쇠고기를 수입하여 비싸게 판 마진으로 finance로 삼았기에 사명의 완수보다는 우선 기구의 유지상 싼 소나 쇠고기를 도입하려는 incentive에 사로잡힐 염려가 있기때문이다. 그간의 업적을 보아도 진흥에 역행하는 혼란과 시행착오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거기서 이룩되는 통계나 시책의 건의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보다도 훨씬 큰 영역을 갖인 일본에서도 아직 농협에서 분화(分化)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우리 축산 전반을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보호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농가에서는 여러가지 국제적 추세로 보아 경쟁체제(競爭體制)강화를 서둘러야겠다. 무엇보다 사육규모의 확대와 종축개량에 힘써야겠다. 낙농분야를 볼때 호당사육 8두, 50두 이상은 겨우 0.9%라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두당착유량도 연간 4,600kg에 불과하니 영세성에서 탈피하고 착유도 7,000kg 이상으로 제고되어야 할것이다.

끝으로 우리들 양축가의 자위(自衛)문제다. 우리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업종별로, 지역단위로 조직되고 단결하여 외국농산물수입을 막고 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할것이다. 지금은 외국의 압력이지만은 머잖아 국내 거대 메이커에서도 압력을 올 수 있고 정부의 시책도 조직이 안된 약한곳의 탈락을 무시할수 있기 때문이다.